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김 병 오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무국장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
우리 정부도 이 날을 기념하고 6월 한 달 동안 민간단체 및 기업체별로는 자율적인 환경보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사와 토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UNEP가 정한 2008년 세계환경의 날 슬로건도 '습관을 바꿔요!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경제로'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의 전쟁이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기름값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능가하는가 하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가 상승하는가 하면 모든 물가가 출렁이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이제 구호가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절박한 상황이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관련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제3의 오일쇼크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지혜를 모을 때다.
우리 국민은 지난 1997년의 IMF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대처능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부터 해외여행 자제에 이르기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 시대를 돌파하는데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절실하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이른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한다면 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리라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환경운동이다. 환경운동은 환경의 달이라고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환경운동은 생활 속의 실천이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 엘니뇨 현상 등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이들 모두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빚어지는 지구 대재앙의 원인 요소들이다.
에너지는 인류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과다사용은 반드시 인류에게 대재앙으로 화답할 것이다.
환경의 달인 6월에 우리 모두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자. ㉞